

# 2020년 러시아 북극 정책 수립 이후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와 사회계층화 현상\*

최 우 익\*\*

## 목 차

- 서 론
- 기존 연구 동향과 분석 방법
-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와 사회계층화 현상
- 결 론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 정부가 2020년에 수립한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 정책 기본 원칙” 중에서 ‘북극권 주민 삶의 질 향상’ 목표에 초점을 두어 이 중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를 분석했다. 2010년대 후반기보다 2020년대 전반기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평균 소득은 증가했다. 2020년 이후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평균 소득은 전 국민 평균치를 웃돌 뿐 아니라 소득 증가 폭도 더 컸고 지역별 소득 순위도 더 높아졌다.

하지만 소득 분위별 총소득 비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 북극권 주민 중에서 2020년대 소득이 증가한 집단은 상층분이며, 중간층과 하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특히 주로 광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층 전문 집단에 소득이 집중되었다. 게다가 다수 지역에서는 극빈층 비율이 러시아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 연구는 202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교수

## I. 서론

최근 북극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5년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공공연하게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쇠빙선 40척을 건조해 러시아를 제치고 북극항로 패권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현재는 제한된 시점에만 상선이 북극항로를 다닐 수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예상보다 빨리 녹을 것으로 전망되어 2050년경 북극항로 경제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미국, 더 나아가 비 북극권 국가들까지도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항로 개발 참여에 나서고 있다.

이제 북극은 전 세계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 되었다. 러시아는 이미 2020년 전후 다양한 중장기 북극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기존 정책과 제도들을 보완하며 기본적으로는 북극 경제 개발과 그 성과의 국익 기여 증대 방안에 많은 초점을 두면서도, 외적으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북극항로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 확대, 내적으로는 북극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북극 영토 강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북극을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개척지로 부각하여 대외적으로 타국이 넘볼 수 없는 러시아의 확고한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포석이다.

사실 북극은 과거에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무엇보다 혹한의 기후와 외부로부터의 낮은 접근성으로 이곳은 오랜 기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소수민족의 문화 보존지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 천연자원 채굴지로서 중요성이 커졌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이 오르고 산업 개발 잠재력이 높아지면서 세계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러시아가 2020년 전후 발표한 2035년까지의 다양한 중장기 북극 정책 중 북극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다. 러시아는 2020년에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 정책 기본 원칙(이하 ‘2035 북극 기본 원칙’으로 표기함)”<sup>1)</sup>과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 지역 개발 및 국가 안보 보장 전략(이하 ‘2035 북극 개발 및 안보 전략’으로 표기함)”<sup>2)</sup>을 발표했고, 이외에도 다양한

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5.03.2020 № 164,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003050019?index=1&rangeSize=1> (검색일: 2024.04.26).

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6.10.2020 № 645, “О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북극 개발 관련 정책들을 이 시기 전후 마련했다.<sup>3)</sup> ‘2035 북극 기본 원칙’에서는 ‘북극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북극 경제 발전 가속화와 국가 경제 성장 기여도 증대’, ‘북극 환경과 소수민족 보호’, ‘국제법에 기초한 북극 협력과 분쟁 해결’, ‘북극에서 러시아연방의 국익 보호’ 등의 러시아 북극 정책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 가장 서두에서 북극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sup>4)</sup> ‘2035 북극 개발 및 안보 전략’에서는 북극 지역의 발전과 국가 안보 보장에 위협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북극 주민 삶의 질 관련 부분을 보면, 북극에서의 인구 감소와 유출, 낮은 기대 수명, 주택과 사회복지의 부족, 위험한 근무 여건과 보상 체제의 미비, 연료, 식량, 기타 필수 물품의 부족, 교통 및 운송 인프라 저개발, 열악한 교육 및 의료 환경 등을 꼽고 있다.<sup>5)</sup>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러시아는 북극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북극 정책의 중대한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르면 한 국가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항구적인 주민, 일정한 영토,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sup>6)</sup> 따라서 러시아가 북극 영토와 영해를 국제적으로 확고하게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받고, 이 영토에 대한 보호 수단을 합법적으로 마련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곳에 거주하는 항구적인 주민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 북극 주민을 러시아 국민으로서 정상적으로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된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북극 주민 삶의 질은 상당히 열악하고 불안정하며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이들을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이고 항구적인 주민의 존재는 이 영토를 러시아 국가의 한 부분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010260033> (검색일: 202.04.26).

- 3) 러시아의 다양한 북극 개발 관련 정책들의 내용은 다음 참조 최우익, “러시아의 북극 정책과 한러 협력 - 북극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 『슬라브연구』, 제40권, 2호 (2024), pp. 68-75.
- 4) 이에 관한 내용은 ‘2035 북극 기본 원칙’ 중 ‘III. 북극에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의 목표, 주요 방향 및 목표’의 ‘9절. 북극에서 러시아연방의 국가정책 목표’의 a~d에 기술되어 있음.
- 5) 이에 관한 내용은 ‘2035 북극 개발 및 안보 전략’의 ‘II. 북극 지역 개발 현황 및 국가 안보 현황 평가’의 ‘7절. 북극 지역의 발전과 국가 안보 보장에 위협을 초래하는 주요 위험, 도전, 위협’의 a부터 r까지 19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 6)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 1933년 12월 26일 제7회 미주 국가 회의(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채택, 다음 해 1934년 12월 26일 발표되었음.

군사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포석이 응축된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북극 주민 삶의 질 개선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극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소득의 변화를 분석한다. 삶의 질은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통계연구원은 삶의 질 지표를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의 11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sup>7)</sup>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결정하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주민 ‘소득’에 초점을 둔다.

러시아가 2020년에 수립한 ‘2035 북극 기본 원칙’의 ‘5장 러시아연방의 북극 국가정책 이행에 대한 주요 성과 지표’에서도 ‘소수민족을 포함한 러시아 연방 북극권 주민 삶의 질과 소득 수준을 전국 평균보다 더 앞질러 성장시킬 것’이라고 언급한다.<sup>8)</sup> 본 연구는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2020년에 수립한 북극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러시아의 북극 정책이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본 논문의 내용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 기존 연구 동향과 분석 방법, 3장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와 사회계층화 현상, 4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 II. 기존 연구 동향과 분석 방법

우리나라는 물론 서구나 러시아 학계에서도 러시아 지역 및 지역 주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북극, 시베리아, 극동 지역은 중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과도 격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지리적, 기후적 특징 속에서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일반 지역과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공동체

7) 국가통계연구원, “국민 삶의 질 지표 소개,”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tro/LifeIntro.do> (검색일: 2025.05.05).

8) ‘2035 북극 기본 원칙’ 중 ‘V. 러시아연방의 북극 국가정책 이행에 대한 주요 성과 지표’의 28절 6의 내용.

와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sup>9)</sup> 하지만 이들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연구는 현재 부족한 상태이다.

게다가 러시아 북극 지역에 관한 사회계층 연구로 한정하면 연구 폭은 더 좁아지는데, 몇 가지 대표적 연구 사례를 꼽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러시아 북극 지역 주요 부문에 대한 특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고용과 투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sup>10)</sup> 러시아 북극 지역의 빈곤 수준과 사회적 분포를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빈곤 정책 연구,<sup>11)</sup> 러시아 북극 지역의 지역적 분화와 중국의 도시 및 농촌 인구를 비교, 평가하면서 세계적 맥락과 특정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 양극화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sup>12)</sup> 러시아 북극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지만, 국제이주민이 꾸준히 유입되며 나타나는 교대 노동에 관한 연구,<sup>13)</sup>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유형화한 연구<sup>14)</sup> 등이 있다. 러시아 북극 지역 사회계층화 현상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북극 주민의 소득 변화에 초점을 둔다. 소득은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는데, 특히 사회계층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표이다. 시장개혁 초기 러시아 사회계층 연구의 대표적 학자로 자슬랍스카야(Т. И. Заславская)를 꼽을 수 있다. 그녀는 탈 소비에트 시대 사회계층 구조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회적 지위 성분에 대한 비교 우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소비에트 시대 사회계층화에서는 권력과 관리 체계의 위치와 행정적 직위의 범주가 결정적이었는데, 오늘날은 소유와 소득의 범주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sup>15)</sup> 즉, 시장경제의 사회

9) И. П. Рязанцев, М. С. Халик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оциология: Региональный аспект* (Москва: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2005), сс. 42-47.

10) Alexander D. Volkov, Natalia A. Roslyakova, Anastasia V. Vasilieva, Alexander O. Averyanov, Sergey V. Tishkov, Ekaterina V. Nalivaychenko, “Preferential Regime of the Russian Arctic: Tendencies and First Results from Realization of the World’s Largest Special Economic Zone,” *Journal of Risk and Financial Management*, Vol. 17, Issue. 1 (January 2024).

11) Елена Анатольевна Корчак, “Бед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как угроза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российской Арктики,” *Арктика и Север*, № 40 (2020).

12) Н. С. Подшивалов, И. А. Сивоброва, “Социальная поляризация и дифференциация доходов населения по оси «Север-Центр»,” *Арктика и Север*, № 55 (2024).

13) 최우익, “러시아 북극의 인구 이주와 교대 노동,” 『슬라브연구』, 제36권, 2호 (2020).

14) В. И. Акопов, Ю. А. Гаджиев,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Проблемы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 5 (2008); 최우익,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 비교 연구: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5권, 4호 (2021).

계층화 현상에서 소득 수준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지슬랍스카야는 사회계층 분류를 위해 취업 분야, 조직 규모, 직무 지위, 교육 수준, 숙련도, 소득 규모 등 10개의 변수를 이용해 총체적으로 경제적, 권력적, 사회문화적 잠재력을 측정하여 1990년대 중반 러시아 사회계층을 6개로 분류하였다.<sup>16)</sup>

티호노바(Н. Е. Тихонова)는 1990년대부터 최근 2010년대까지도 러시아 사회계층화 현상을 장기간 연구한 학자이다. 티호노바는 소득, 교육, 주택, 직업, 박탈감, 저축, 문화 수준, 여가 기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수준을 세세하게 측정한 객관적 지표들을 이용해 ‘생활수준지수(индекс уровня жизни)’ 개념을 고안하였다. 이를 통해 그녀는 실제 사회구조에 대한 상당히 객관적인 실체를 그려내고자 시도했으며 2010년대 러시아 사회계층을 5개로 분류하였다.<sup>17)</sup>

이들 외에도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해 러시아 사회계층화 현상을 연구한 여러 학자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한 국가나 사회의 내면을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해 해당 사회구조와 사회변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들을 제공했다. 그런데 한 국가나 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간, 국가 간, 시대별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들의 연구 샘플 규모를 더 크게 하거나, 지역마다 연구 샘플 규모 기준치를 고르게 둘 필요가 있고, 지역 간, 시차 간 통일된 조사 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역 비교나 시차 비교 작업에서 여러 지표를 종합해 사회계층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분석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역 비교 연구의 경우에는 분석 지표를 단일화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여러 지역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역 비교 연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국가 통계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득 통계 자료만을 활용해 사회계층 구조의 경향이나 특성을 유추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한다.<sup>18)</sup>

15) Т. И. Заславск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оци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уда идет Россия?.. Соци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Москва: Аспект Пресс, 1996), с. 18.

16) Т. И. Заславск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 1 (1996), сс. 7-15.

17) Н. Е. Тихонова,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теории и реальность* (Москва: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2014), сс. 97-116.

18) 이러한 연구 사례로는 다음 참조. Т. Ю. Богомолова, В. С. Таплин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90-е годы: динамический аспект,” *Россия, которую мы*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 연구 기관에서 국가가 취득한 소득 통계정보만으로 사회계층화 현상을 비교 분석한 사례가 있다. OECD는 세계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한 국가 내의 국민 소득 순위를 5분위(20%씩 나는 다섯 개 그룹) 또는 10분위(10%씩 나는 열 개 그룹)로 나누어 각 집단이 차지하는 총소득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sup>19)</sup>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미국 중산층을 이들의 가구 소득이 미국 전체 가구 소득 중위값의 2/3에서 2배 사이에 있는 집단으로 정의하여 중산층의 동향을 분석했다.<sup>20)</sup>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는 중산층을 소득 분위 20~60%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하여 계층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sup>21)</sup>

본 연구는 러시아통계청의 소득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극권 주민 소득 평균치와 러시아 국민 소득 평균치를 비교하기도 하고, 북극권 주민 지역 간 소득을 비교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계층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득 분위별 분석을 활용한다. 이때 소득 상위 20% 집단을 상층, 소득 상위 20~60% 집단을 중간층, 소득 하위 20% 집단을 하층으로 설정해 사회계층화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극권 주민의 상층, 중간층, 하층의 소득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사회계층화 현상의 특징과 경향을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러시아통계청에서 출간하는 지역 통계정보를 활용한다. 러시아 북극은 법령에 따라 총 9개 주(2개 주, 3개 자치구, 1개 변경주, 3개 공화국)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4개 주는 전 지역이 법적으로 북극에 포함되지만, 5개 주는 일부 지역만 북극에 포함된다.<sup>22)</sup> 그런데 러시아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 통계정보의 단위는 ‘주’를 기본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만 법적으로 북극에 해당하는 주라고

*обретаем*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2003); 최우익, “러시아 중간계층의 지역별 분포와 양상,” 『슬라브학보』, 제23권, 3호 (2008).

19) OECD,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Paris: OECD Publishing, 2019).

20) Rakesh Kochhar, “The American middle class is stable in size, but losing ground financially to upper-income families,”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18/09/06/the-american-middle-class-is-stable-in-size-but-losing-ground-financially-to-upper-income-families/> (검색일: 2025.05.03).

21) Richard V. Reeves, Katherine Guyot,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middle class”—here’s ours,”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re-are-many-definitions-of-middle-class-heres-ours/?utm\\_source=chatgpt.com](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re-are-many-definitions-of-middle-class-heres-ours/?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05.03).

2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2.05.2014 N 296 (ред. от 05.03.2020), “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5 марта 2020 года),” <http://docs.cntd.ru/document/499093267> (검색일: 2020.05.21).

하더라도 9개 지역 통계정보를 같은 수준에서 비교, 검토하기 위해 모두 동일적으로 주 단위의 통계정보를 분석 단위로 한다. 이렇게 해도 북극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징의 경향을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일부 지역만 법적으로 북극이라고 해도 해당 주 전체를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북극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23)</sup> 따라서 이렇게 본 연구에서 ‘주’를 단위로 러시아 북극 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러시아 법령으로 정해진 실제 북극 지역을 분석하는 것과 연구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러시아통계청의 『러시아 지역: 사회-경제 지표(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에 주로 기초한다. 현재 이 자료의 가장 최신판은 2024년도 판인데, 여기에는 2023년 통계 수치까지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범위의 가장 최근 시기는 2023년이다. 본 연구는 2020년에 발표한 러시아 북극 정책이 현재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시기와 전 시기를 비교하기 위해 2018년 통계정보부터 다룬다. 그러면 2010년대 후반기와 2020년대 전반기 상황을 비교하면서 변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의 통계정보를 분석 기간으로 하며, 85개 주 지역 통계정보 중 러시아 북극 9개 지역 정보만 주 단위로 추출하여 독립적으로 재구성한 표를 작성해 분석한다. 표마다 자료의 출판 연도와 재구성 방식을 밝힌다.

### Ⅲ.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와 사회계층화 현상

#### 1.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

러시아 북극에 포함된 9개 주의 총면적은 약 827만km<sup>2</sup>로 이는 러시아 전 영토의 약 48%를 차지한다. 그런데 북극권 9개 주 주민은 2024년 1월 시점 약 731만 명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약 5%이며, 취업자 수는 약 372만 명으로

23) 러시아 북극 경계에 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기준과 통계청 자료에 관한 해제는 다음 참조. 최우익, “러시아 북극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인구와 이주민 추이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1호(2019), pp. 32~37.

역시 전체 취업자의 약 5%에 불과하다. 북극권 지역 면적에 비해 인구 규모가 훨씬 작는데, 그것은 이 지역 대부분이 국토의 변경 지대이며 혹한의 기후와 척박한 환경으로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기 힘든 곳이어서 그렇다. 한편, 북극권 지역 총생산은 2022년 시점 약 14조 5,390억 루블로 이것은 러시아 총생산 전체의 약 10.3%를 차지하여 인구 대비 경제적 비중은 약 2배 크다.<sup>24)</sup>

2022년 시점 러시아 85개 주 중에서 지역총생산 순위가 야말로네네츠는 5위(5조 3,500억 루블), 크라스노야르스크는 9위(3조 3,190억 루블), 사하는 17위(2조 250억 루블)로 이들 지역은 러시아 내에서 비중 있는 생산 지역이다.<sup>25)</sup>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역총생산 중 가장 높은 곳이 다수 있는데, 야말로네네츠는 광업 비율이 72%, 네네츠는 85%, 사하는 60%, 코미는 48%, 추콧카는 30%, 카렐리야는 16%를 차지한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는 지역총생산 중 제조업이 가장 높은 27%를 차지하지만, 광업도 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외에 무르만스크(33%), 아르한겔스크(30%)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sup>26)</sup> 따라서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는 대체로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광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다음 제조업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표 1] 러시아 북극권 주민 1인당 월평균 소득 변화 추이(단위: 루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러시아	33,178	35,247	35,934	39,934	47,386	53,579
카렐리야	29,150	30,854	36,504	39,929	46,019	53,068
코미	33,961	35,356	39,601	42,603	50,840	56,152
아르한겔스크	32,054	33,874	37,728	41,307	49,347	55,952
네네츠	78,549	81,041	89,570	92,620	115,336	128,204
무르만스크	41,564	44,237	50,139	55,506	65,707	75,786

24) 다음 자료에서 러시아 북극권 관련 통계치만 취합하여 연산함.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24), сс. 18-23. 러시아 법령에서 지정한 북극 지역의 면적과 인구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북극 지역이 일부라도 포함된 9개 주 전체의 면적과 인구에 대한 통계정보임. 또한 북극 지역 명칭은 지면 제약으로 행정 단위명을 떼고 다음처럼 줄여서 기재함. 카렐리야 공화국 → 카렐리야, 코미 공화국 → 코미, 아르한겔스크주 → 아르한겔스크, 네네츠 자치구 → 네네츠, 무르만스크주 → 무르만스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 야말로네네츠,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 크라스노야르스크, 사하 공화국 → 사하, 추콧카 자치구 → 추콧카.

25)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24), сс. 18-23.

26)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24), сс. 472-475.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야말로네네츠	79,398	83,088	96,553	104,323	120,010	139,651
크라스노야르스크	30,015	31,739	32,801	36,004	43,183	50,380
사하	42,669	45,458	46,108	50,090	59,040	69,031
추랏카	78,812	83,385	92,980	104,178	138,161	156,988
평균	49,575	52,115	57,998	62,951	76,405	87,246

출처: 다음 2개년의 자료에서 통계수치를 취합하고 연산해 하나의 표로 재구성하였음.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20), сс. 238-239; (M.: Росстат, 2024), сс. 200-201.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1인당 월평균 소득 변화 추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러시아 국민 1인당 월평균 소득은 2018년 33,178루블에서 2023년 53,579루블로 약 1.6배 증가했는데, 북극권 지역 주민 평균 소득은 49,575루블에서 87,246루블로 약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북극권 지역 주민 평균 소득의 증가 폭이 러시아 평균치보다 좀 더 커서 우선 이 점만 보았을 때 2020년 러시아 북극 정책은 긍정적으로 진행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7)</sup>

게다가 매년 북극권 지역 주민 평균 소득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전 국민 평균 소득보다 약 1.6~1.7배 높다. 이렇게 북극권 주민 소득 수준이 높은 이유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특히 네네츠, 야말로네네츠, 추랏카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높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소득 수준은 러시아 전 국민 평균 소득보다 약 2~3배 크다. 이처럼 이들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은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지역들이 광업 중심지인데, 바로 광업 종사자 임금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023년 시점 러시아 전체에서 광업 종사자는 약 122만 명인데, 이 중 약 21%인 26만 명이 이들 9개 북극권 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다. 네네츠(24.9%), 야말로네네츠(24.3%), 추랏카(21.0%)에서는 광업 종사자 비율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다. 또한, 코미(6.5%), 무르만스크(6.4%), 사하(11.8%)에서도 광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sup>28)</sup>

27) 러시아는 지역별로 지리적,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크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 수준을 분석할 때 해당 지역의 실질 소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러시아통계청에서는 지역별 실질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전년도 대비 백분율로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정보만으로는 여러 지역을 일정 기간에 걸쳐 변화 양상을 비교, 추적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삼는 실제 수치로 이루어진 명목 소득 정보는 전체적인 경향과 추세를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를 기초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8) 다음 자료에서 확인하고 연산한 수치임.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광업 종사자 임금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3년 러시아 산업별 종사자의 월평균 명목 임금 통계를 보면 농림수산업은 54,158루블, 광업은 131,588루블, 제조업은 71,855루블이다. 러시아통계청은 3차 산업을 17개 분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광업보다 높은 임금 분야는 정보 및 통신 활동(136,988루블)과 금융 및 보험 활동(170,600루블) 정도가 있을 뿐이다.<sup>29)</sup> 따라서 광업 임금은 여러 산업 분야 중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분야는 노동 강도가 세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극권 지역 중 특히 네네츠, 야말로네네츠, 추콧카 주민의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이유는 바로 광업 종사자 비율이 이곳에서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북극권 지역 주민의 1인당 월평균 소득도 러시아 평균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다.<sup>30)</sup>

[표 2]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1인당 월평균 소득 순위 추이(85개 연방주체 중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러시아	1~85					
카렐리아	28	28	25	26	21	20
코미	17	18	17	19	15	14
아르한겔스크	19	19	20	20	17	15
네네츠	3	3	3	4	3	3
무르만스크	12	12	11	11	10	8
야말로네네츠	1	2	1	2	1	2
크라스노야르스크	25	26	24	23	23	23
사하	11	11	12	12	11	11
추콧카	2	1	2	1	2	1
평균	13.1	13.3	12.8	13.1	11.4	10.8

출처: 다음 6개년의 자료에서 통계수치를 취합하고 연산해 하나의 표로 재구성하였음.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19), сс. 198-199; (M.: Росстат, 2020), сс. 238-239; (M.: Росстат, 2021), сс. 198-199; (M.: Росстат, 2022), сс. 198-199; (M.: Росстат, 2023), сс. 200-201; (M.: Росстат, 2024), сс. 200-201.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24), сс. 124-131.

29)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M.: Росстат, 2024), сс. 151.

30) 광업 종사자 외에도 북극 모든 산업 분야의 임금은 다른 일반 지역보다 높다. 소련 시대부터 이미 북극의 임금은 높았는데, 북극은 인간이 거주하고 일하기에 불리한 혹독한 자연환경 지대여서 노동력 유입을 위해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곳 대부분이 변경 지대여서 필수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물가가 높은 점도 높은 소득 수준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В. В. Климанов,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осква: Эдиториал УРСС, 2000), сс. 27-32.

러시아 북극권 주민 소득이 높다는 점은 이것을 85개 연방주체 중 지역별 소득 순위로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2]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소득 순위는 모두 상위권에 있다. 2023년 시점 추콧카(1위), 야말로네네츠(2위), 네네츠(3위), 무르만스크(8위) 순위는 10위 안에 드는 최상위권이며, 나머지 지역도 10~20위 권에 포함된다. 앞에서 러시아 북극권 지역의 지역총생산 순위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1인당 지역총생산 순위로 계산했을 때도 북극권 지역 대부분이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다. 2022년 시점 네네츠(1위), 야말로네네츠(2위), 추콧카(5위), 사하(8위), 무르만스크(10위), 코미(11위), 크라스노야르스크(13위)는 최상위권이며, 카렐리야(33위), 아르한겔스크(34위)도 중상위권에 있다.<sup>31)</sup> 이러한 지표들로 볼 때 러시아 북극권 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1인당 월평균 소득과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이 모두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2]에 따르면, 9개 북극권 각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소득 순위의 평균치는 2018~2021년에는 약 13위였는데 2022~2023년 각각 11.4위와 10.8위로 상향되어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소득 수준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향된 것으로 파악된다. 네네츠, 야말로네네츠, 사하, 추콧카는 본래 최상위권 이어서 별로 변동이 없고, 나머지 지역은 순위가 상향되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2020년 이후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평균 소득은 러시아 전 국민 평균치를 훨씬 웃돌 뿐 아니라 게다가 소득 증가 폭도 더 컸고 지역별 소득 순위도 더 높아져 북극권 주민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2020년 러시아 북극 정책은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지니계수가 높아져 일정 정도 러시아 북극권 주민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커진 현상이 발견된다. 이것은 주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격차가 더 벌어지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31)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Росстат, 2024), сс. 32-37.

[표 3] 러시아 북극권 지역 주민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지니계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러시아	0.413	0.411	0.406	0.409	0.395	0.405
카렐리야	0.341	0.341	0.342	0.342	0.324	0.364
코미	0.382	0.379	0.374	0.373	0.353	0.384
아르한겔스크	0.366	0.364	0.353	0.356	0.339	0.369
네네츠	0.426	0.435	0.424	0.424	0.419	0.441
무르만스크	0.356	0.342	0.337	0.342	0.323	0.353
야말로네네츠	0.435	0.437	0.438	0.440	0.440	0.463
크라스노야르스크	0.392	0.390	0.384	0.386	0.379	0.398
사하	0.405	0.405	0.397	0.401	0.404	0.417
추랏카	0.405	0.408	0.407	0.410	0.410	0.427
평균	0.39	0.39	0.38	0.39	0.38	0.40

출처: 다음 6개년의 자료에서 통계수치를 취합하고 연산해 하나의 표로 재구성하였음.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19), cc. 230-231; (M.: Росстат, 2020), cc. 270-271; (M.: Росстат, 2021), cc. 232-233; (M.: Росстат, 2022), cc. 232-233; (M.: Росстат, 2023), cc. 232-233; (M.: Росстат, 2024), cc. 238-239.

[표 3]에 따르면, 2018년 러시아 지니계수는 0.413이었는데, 점차 낮아져 2022년에 0.395까지 내려갔다가 2023년에 0.405로 조금 높아졌다.<sup>32)</sup> 북극권 주민의 평균 지니계수는 대체로 러시아 평균치보다 낮다. 그런데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평균 지니계수는 2018~2022년에 0.38~0.39 정도를 유지하다가 2023년 0.40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북극권 지역별로 지니계수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즉, 네네츠(약 0.42~0.44)와 야말로네네츠(약 0.43~0.46)의 지니계수는 항상 러시아 평균치보다 꽤 높았고, 2020년대에 들어와서도 조금씩 높아져서 이곳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추랏카는 2020년부터(약 0.41~0.43), 그리고 사하는 2022년부터(약 0.40~0.42) 러시아 평균치보다 높아졌다. 따라서 이들이 북극권 주민의 지니계수를 높이는 주요 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지니계수가 높은 편이 아니다. 이들 지니계수가 높은 북극권 지역은

32) 러시아 지니계수는 2010년 0.421로 최대였는데, 그 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북극권 9개 지역의 평균 지니계수도 2010년 0.41에서 그 후 점차 낮아졌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최우익,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 비교 연구: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5권, 4호 (2021), pp. 14-19.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광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곳이며, 1인당 월평균 소득 순위도 높은 지역이다. 다만, 이러한 빈부격차 심화 현상이 고소득 집단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져서인지, 아니면 저소득 집단의 소득 수준이 더 낮아져서인지 더 자세한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III장 2절에서 진행한다.

이처럼 몇 가지 통계정보로 파악했을 때 2020년대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소득 수준은 일정 정도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020년 새로운 러시아 북극 정책은 긍정적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지만, 순조롭지 않은 측면도 보인다. 왜냐하면 빈부격차의 심화는 삶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내부적으로 더 탐색하기 위해 러시아 북극권 지역 주민의 소득 변화를 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계층화 현상

러시아통계청의 『러시아 지역: 사회-경제 지표(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에서는 지역별로 주민의 소득 순위 20% 집단마다 차지하는 총소득 비율 정보를 제공한다. 즉, 소득 상위 0~20% 구간 집단이 차지하는 총소득 비율, 그다음 차례로 20~40% 구간 집단, 40~60% 구간 집단, 60~80% 구간 집단, 80~100% 구간 집단(하위 20%)이 차지하는 총소득 비율을 각각 제공한다. II장에서 밝힌 것처럼 이 중 소득 상위 20~60% 구간 집단을 중간층으로 설정한다. [표 4]는 러시아통계청에서 제공한 소득 상위 20~40% 구간 집단과 40~60% 구간 집단의 총소득 비율을 본 연구자가 직접 합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표 4] 러시아 북극권 주민 소득 상위 20~60% 구간 집단(중간층)의 총소득 비율 추이(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러시아	37.6	37.7	37.9	37.8	38.2	37.9
카렐리야	39.7	39.7	39.7	39.7	40.0	39.1
코미	38.6	38.7	38.8	38.8	39.4	38.5
아르한겔스크	39.0	39.1	39.4	39.3	39.7	38.9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네네츠	37.2	36.9	37.3	37.2	37.4	36.6
무르만스크	39.3	39.7	39.8	39.7	40.1	39.3
야말로네네츠	36.9	36.8	36.7	36.7	36.7	35.8
크라스노야르스크	38.3	38.4	38.5	38.5	38.7	38.2
사하	37.9	37.9	38.1	38.0	37.9	37.5
추랏카	37.9	37.8	37.9	37.7	37.7	37.2
북극 평균	38.3	38.3	38.5	38.4	38.6	37.9

비고: 소득 순위 20% 집단별로 나누었을 때 상위 2그룹(20~40%)과 3그룹(40~60%)의 합 = 중간층  
 출처: 다음 6개년의 자료에서 통계수치를 취합하고 연산해 하나의 표로 재구성하였음.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19), сс. 230-231; (M.: Росстат, 2020), сс. 270-271; (M.: Росстат, 2021), сс. 232-233; (M.: Росстат, 2022), сс. 232-233; (M.: Росстат, 2023), сс. 232-233; (M.: Росстат, 2024), сс. 238-239.

[표 4]에 따르면, 러시아 중간층의 총소득 비율은 2018년 37.6%였는데, 2023년에 37.9%로 미미하게 높아졌다. 그런데 북극권 주민 중간층의 경우에는 2018~2022년 기간에 총소득 비율이 38.3%에서 38.6%로 작은 폭이지만 점진적으로 높아졌다가 2023년에는 37.9%로 1년 만에 꽤 큰 폭으로 낮아졌다. 2018~2021년 기간에는 러시아 평균치보다 북극권 중간층의 총소득 비율은 0.6~0.7%p 정도 높았는데, 2022년에는 0.4%p 높았고, 2023년에는 러시아 평균과 같은 수치로 낮아졌다. 따라서 2023년 시점 러시아 북극권 중간층 총소득 비율은 하향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러시아 북극 지역별 상위 20% 소득 집단의 총소득 비율 추이(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러시아	47.1	46.9	46.4	46.7	45.6	46.4
카렐리야	41.4	41.3	41.4	41.4	40.1	43.1
코미	44.6	44.3	43.9	43.9	42.3	44.7
아르한겔스크	43.3	43.1	42.3	42.5	41.2	43.6
네네츠	48.1	48.9	47.9	48.0	47.6	49.4
무르만스크	42.5	41.4	41.0	41.4	40.0	42.3
야말로네네츠	48.9	49.0	49.2	49.3	49.3	51.3
크라스노야르스크	45.3	45.2	44.7	44.9	44.3	45.8
사하	46.4	46.4	45.8	46.1	46.3	47.4
추랏카	46.4	46.7	46.5	46.8	46.8	48.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북극 평균	45.2	45.1	44.7	44.9	44.2	46.2

출처: 다음 6개년의 자료에서 통계수치를 취합해 하나의 표로 재구성하였음.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19), сс. 230-231; (M.: Росстат, 2020), сс. 270-271; (M.: Росстат, 2021), сс. 232-233; (M.: Росстат, 2022), сс. 232-233; (M.: Росстат, 2023), сс. 232-233; (M.: Росстат, 2024), сс. 238-239.

[표 5]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 상위 20% 소득 집단의 총소득 비율은 2018년 47.1%였지만 2023년 46.4%로 0.7%p 미미하게 낮아졌다. 상위 20% 소득 집단은 모든 집단 총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북극권 주민 상위 20% 소득 집단의 총소득 비율은 약 45% 전후이며 역시 이들에게 총소득의 거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2018년 45.2%에서 2022년 44.2%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에는 46.2%로 2%p나 높아졌다. 러시아 북극권 상위 20% 집단의 총소득 비율은 2018~19년에는 러시아 평균치보다 거의 2%p 낮았는데, 2020년부터 점점 차이가 좁혀져 2023년에는 0.2%p만 낮다. 따라서 북극권 주민 상위 20% 집단의 소득은 2023년 시점 상향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러시아 북극 지역별 하위 20% 소득 집단의 총소득 비율 추이(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러시아	5.3	5.3	5.5	5.4	5.7	5.5
카렐리야	7.0	7.1	7.0	7.0	7.5	6.5
코미	6.0	6.1	6.2	6.2	6.7	6.0
아르한겔스크	6.4	6.5	6.7	6.7	7.1	6.3
네네츠	5.0	4.8	5.1	5.1	5.2	4.7
무르만스크	6.7	7.0	7.2	7.0	7.5	6.8
야말로네네츠	4.8	4.8	4.8	4.7	4.7	4.2
크라스노야르스크	5.8	5.8	6.0	5.9	6.1	5.6
샤하	5.5	5.5	5.7	5.6	5.5	5.2
추코트카	5.5	5.4	5.4	5.4	5.4	5.0
북극 평균	5.9	5.9	6.0	6.0	6.2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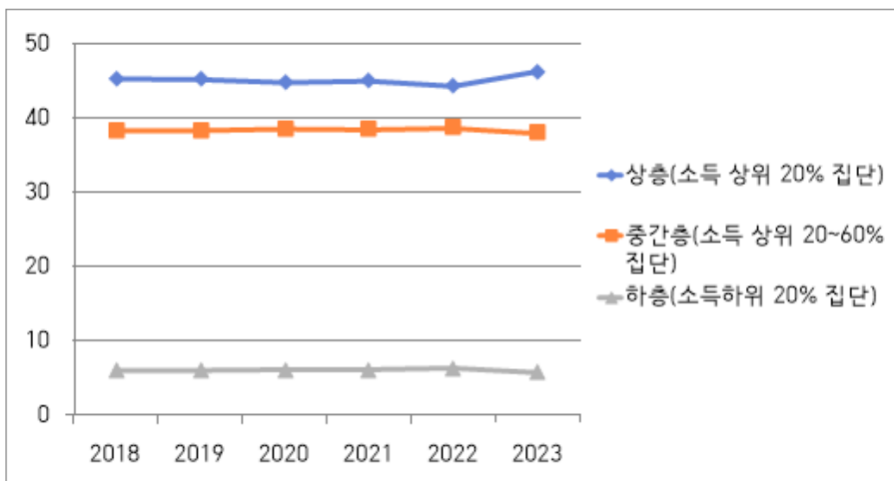
출처: 다음 6개년의 자료에서 통계수치를 취합하고 연산해 하나의 표로 재구성하였음.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19), сс. 230-231; (M.: Росстат, 2020), сс. 270-271; (M.: Росстат, 2021), сс. 232-233; (M.: Росстат, 2022), сс. 232-233; (M.: Росстат, 2023), сс. 232-233; (M.: Росстат, 2024), сс. 238-239.

[표 6]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 하위 20% 소득 집단의 총소득 비율은 2018년 5.3%에서 2023년 5.5%로 미미하게 높아졌다. 이들 집단의 소득 비율은 중간층과 상층에 비하면 매우 낮다. 하위 20% 집단의 총소득 비율은 상위 20% 집단의 약 1/8~1/9에 불과하다. 역시 이러한 양상은 북극권 주민에게서도 유사하다.

북극권 주민 하위 20% 소득 집단의 총소득 비율은 2018년 5.9%에서 2022년까지 조금씩 높아져 6.2%를 차지했는데, 2023년 5.6%로 1년 만에 꽤 낮아졌다. 2018~2022년까지 러시아 평균치보다 북극권 주민 하위 20% 소득 집단의 총소득 비율은 약 0.5~0.6%p 높았는데, 2023년에는 0.1%p만 높다. 따라서 북극권 주민 하위 20% 집단의 소득은 2023년 시점 하향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표 5], [표 6]의 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러시아 북극권 주민 중에서 2000년대 소득이 늘어난 집단은 상층뿐이며, 중간층과 하층은 소득이 작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2018~2022년 기간에 러시아 북극권 주민 중 중간층과 하층의 총소득은 러시아 평균치보다 각각 0.4~0.7%p와 0.5~0.6%p 높지만, 2023년에는 러시아 평균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에 상층의 총소득은 러시아 평균보다 거의 2%p 낮았지만, 2023년에 러시아 평균에 근접해졌다.

[그림 1] 2018~2023년 북극권 상층, 중간층, 하층 주민 소득 비율 추이(단위: %)



출처: [표 4], [표 5], [표 6]의 상, 중, 하층 평균 통계수치를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함.

따라서 2023년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바로 상층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중간층과 하층의 소득은 감소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III장 1절에서 확인된 2020년대 러시아 북극 주민의 소득 증가는 사실 상층에 집중된 소득 증가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며, 중간층과 하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여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또한 북극 주민의 중간층과 하층의 평균 소득은 이전에는 러시아 평균치보다 높았지만, 2020년대에는 러시아 평균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러시아 전국 평균치보다 더 앞질러 성장하는 것이 목표였던 북극 정책 주민 삶의 질 개선 과제는 이들 집단에게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해야 한다. 이에 더해 다음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하층의 경우 극빈층 비율이 꽤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표 7]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율 추이(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러시아	12.6	12.3	12.2	11.1	9.0	8.5
카렐리야	15.6	15.7	13.5	12.8	11.1	10.2
코미	14.9	15.5	14.2	14.0	11.1	10.2
아르한겔스크	12.5	12.7	11.4	10.7	9.2	9.0
네네츠	9.7	9.4	8.8	8.7	7.6	7.6
무르만스크	9.9	10.6	9.4	8.6	7.0	6.7
야말로네네츠	5.8	5.6	4.5	4.3	4.0	3.6
크라스노야르스크	17.1	17.3	17.0	15.9	14.0	12.7
사하	18.6	17.8	17.3	16.3	15.2	14.0
추랏카	8.8	8.5	7.7	7.0	5.2	5.2
평균	12.4	12.6	11.5	10.9	9.4	8.8

출처: 다음 2개년의 자료에서 통계수치를 취합하고 연산해 하나의 표로 재구성하였음.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M.: Росстат, 2020), сс. 278-279; (M.: Росстат, 2024), сс. 244-246.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극빈층을 의미하며 하층 내에서도 더 낮은 소득 수준을 지닌 집단이다.<sup>33)</sup> [표 7]에 따르면, 2010년 후반기보다 2020년대 전반

33) 지니계수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율이 빈곤 현상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서로 다르다. 지니계수는 상층과 하층 간 소득 격차 비율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여기에서 하층의 규모가 크지 작은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율은 극빈층의 규모를 알려주며, 여기에서 이들과 상층 간의 소득 격차 비율을 알 수는 없다.

기에는 러시아 평균치(12.6% → 8.5%)도 그렇고 북극권 주민 평균치(12.4% → 8.8%)도 모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율이 낮아졌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2018~2021년 사이에 2019년을 제외하고 북극권 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율이 러시아 평균치보다 더 낮았는데 2020년대에는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2022년과 2023년에 북극권 주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율(각각 9.4%, 8.8%)은 러시아 평균 비율(각각 9.0%, 8.5%)보다 더 높다. 특히 카렐리야, 코미, 크라스노야르스크, 사하의 극빈층 비율은 약 10~14%에 달할 정도로 높다. 러시아 북극 정책의 과제는 북극권 주민의 삶의 질을 러시아 국민 평균 수준보다 개선하는 것이었는데, 일부 북극권 지역에서는 극빈층 비율이 러시아 국민 평균치를 웃돈다는 점에서 이 과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사회계층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사실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계층화 현상이 심해지는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됐다. 자원 개발로 산업이 발달하지만, 이로 인한 고소득자와 지역 주민 간의 소득 격차는 더 커지는 실정이다. 러시아 북극권 지역 중 가장 대표적 개발 지역인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원 개발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수익 대부분이 국영 기업과 외부 투자자에게 돌아가며, 지역 주민들은 제한된 혜택만을 받는다. 또한,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일자리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고소득의 전문직은 외부에서 유입된 기술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지역 주민들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머무르거나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 변화는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계 수단인 순록 목축, 사냥, 어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 개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개선되지만, 이러한 인프라는 주로 자원 추출과 운송을 위한 목적에 집중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sup>34)</sup>

34) Svetlana A. Tulaeva, Maria S. Tysiachniouk, Laura A. Henry, Leah S. Horowitz, "Globalizing Extraction and Indigenous Rights in the Russian Arctic: The Enduring Role of the State in Natural Resource Governance," *Resources*, Vol. 8, Issue 4 (December 2019).

따라서 2020년 새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북극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북극권 주민 다수의 삶의 질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계층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역별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유형으로 사회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2023년 기준 네네츠(49.4%)와 야말로네네츠(51.3%)의 상층 총소득 비율은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도 가장 높다. 따라서 네네츠와 야말로네네츠에서 소득 수준이 높으면서 지니계수(각각 0.441과 0.463)도 높은 이유는 사실 상위 20% 집단에 소득이 집중되고 있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사하와 추코타에서도 이에 준하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 4개 지역은 모두 광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곳이다. 네네츠, 야말로네네츠, 추코타에서는 광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고(약 21~24%), 사하에서는 교육(12.3%) 다음 광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11.8%). 따라서 이들 중심의 상층에 소득이 집중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빈부격차가 크지만, 네네츠, 야말로네네츠, 추코타에서는 극빈층 비율이 러시아 평균치보다는 낮아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덜하다. 그런데 사하에서는 극빈층 비율이 러시아 평균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sup>35)</sup>

둘째, 카렐리야, 코미,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5개 지역은 지니계수가 4.0 미만이어서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다만, 2018~2023년 대부분 기간에 걸쳐 무르만스크를 제외하고 모두 러시아 평균치보다 극빈층 비율이 높아서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이렇게 대체로 두 유형으로 북극권 지역의 사회계층화 현상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다음 두 지역은 또 다른 특징이 부가된다. 2023년 시점 사하는 1인당 월평균 소득 순위도 높고(11위) 1인당 지역총생산 순위도 높지만(8위), 지니계수(0.417)가 높을 뿐 아니라 극빈층 비율(14.0%)이 러시아 평균치(8.5%)는 물론 북극권 지역에서도 가장 높아 사회적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한편, 무르만스크는 1인당 월평균 소득 순위(8위)와 1인당 지역총생산 순위도 높은데(10위), 지니계수는 낮고(0.353), 극빈층 비율도 낮아서(6.7%) 사회계층화 현상이 가장 덜한 양호한 지역이다.

35) 사하 공화국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Tuyara Gavrilyeva, Anna Naberezhnaya, Filipp Nikiforov, "Poverty in the Russian Arctic: The Case of the Republic of Sakha (Yakutia)," *Forum for Social Economics*, Vol. 51, Issue 4 (2021).

## IV. 결 론

본 연구는 러시아 정부가 2020년에 수립한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 정책 기본 원칙” 중에서 ‘북극권 주민 삶의 질 향상’ 목표에 초점을 두어 이 중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를 분석했다.

2010년대 후반기보다 2020년대 전반기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평균 소득은 증가했다. 2020년 이후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평균 소득은 전 국민 평균치를 웃돌 뿐 아니라 소득 증가 폭도 더 컸고 지역별 소득 순위도 더 높아져 북극권 주민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2020년 러시아 북극 정책은 외견상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니계수가 높아져 러시아 북극권 주민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커진 현상이 발견된다.

따라서 소득 분위별 총소득 비율 추이를 분석했는데 러시아 북극권 주민 중에서 2020년대 소득이 증가한 집단은 상층뿐이며, 중간층과 하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주로 광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층 전문 집단에 소득이 집중되었다고 풀이된다. 게다가 다수 지역에서는 극빈층 비율이 러시아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북극 지역에서 나타났던 고질적인 사회 문제들로부터 비롯된다. 현재 북극에서는 천연자원 개발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국영 기업과 외부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익 대부분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외부 기업이나 외부 전문가 및 기술직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자원 개발은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어 지역 주민은 이러한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 자원 개발로 인해 인프라가 개선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주로 자원 추출 및 운송과 관련된 것이지 지역 주민 삶의 개선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지역 주민의 전통적 생업을 방해해 빈곤율을 높인다. 따라서 2020년 수립한 러시아 북극 정책의 북극 주민 삶의 질 개선 과제는 결과적으로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소득 변화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네네츠, 야말로네네츠, 추코타에서는 산업 발전이 고도로 진행되고 소득도 높아지고

있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카렐리야, 코미, 아르한겔스크, 크라스노야 르스크에서는 북극권 지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순위가 낮은 편이고 지니계수도 낮아서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지만, 다만 극빈층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이다. 무르만스크는 소득 순위는 높지만, 지니계수와 극빈층 비율이 낮아서 사회계층화 현상이 가장 덜한 지역이다. 그러나 사하는 지니계수도 높고, 극빈층 비율도 높아 사회계층화 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평균 소득이 2020년대 높아져 러시아 정부의 삶의 질 향상 북극 정책이 일정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소득 증가는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었고 여전히 다수 지역에서 극빈층 비율이 높아 사회계층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현상이 지속하면 빈부격차 문제로 사회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다. 북극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개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막고, 북극권 주민 스스로 개발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지키고 개척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 통계정보가 정리되어 발표된 2023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는데, 2024년에 발표된 전국 통계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니계수는 더 높아졌다(2023년 0.405 → 2024년 0.408). 따라서 2024년 지역별 통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북극권 주민의 빈부격차는 최근 까지도 더 심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러시아의 새로운 북극 정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큰 배경으로 코로나19와 연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국제적 환경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에 여러 어려움을 일으켰을 것이다. 따라서 북극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가를 위한 연방과 지방 정부의 북극 정책은 여러모로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계층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적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데 이러한 연구과제들을 후속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최우익. “러시아 중간계층의 지역별 분포와 양상.” 『슬라브학보』. 제23권, 3호. 2008.
- \_\_\_\_\_. “러시아 북극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인구와 이주민 추이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1호. 2019.
- \_\_\_\_\_. “러시아 북극의 인구 이주와 교대 노동.” 『슬라브연구』. 제36권, 2호. 2020.
- \_\_\_\_\_.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 비교 연구: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5권, 4호. 2021.
- \_\_\_\_\_. “러시아의 북극 정책과 한러 협력 - 북극 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 『슬라브연구』. 제40권, 2호. 2024.
- Gavrilyeva Tuyara, Naberezhnaya Anna, Nikiforov Filipp. “Poverty in the Russian Arctic: The Case of the Republic of Sakha (Yakutia).” *Forum for Social Economics*, Vol. 51, Issue 4 (2021).
- OECD.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Paris: OECD Publishing, 2019.
- Tulaeva Svetlana A., Tysiachniouk Maria S., Henry Laura A., Horowitz Leah S. “Globalizing Extraction and Indigenous Rights in the Russian Arctic: The Enduring Role of the State in Natural Resource Governance.” *Resources*, Vol. 8, Issue 4 (December 2019).
- Volkov Alexander D., Roslyakova Natalia A., Vasilieva Anastasia V., Averyanov Alexander O., Tishkov Sergey V., Nalivaychenko Ekaterina V. “Preferential Regime of the Russian Arctic: Tendencies and First Results from Realization of the World’s Largest Special Economic Zone.” *Journal of Risk and Financial Management*, Vol. 17, Issue 1 (January 2024).
- Акопов В. И., Гаджиев Ю. А.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Проблемы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 5 (2008).
- Богомолова Т. Ю., Таплина В. С.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90-е годы: динамический аспект.” *Россия, которую мы обретаем*.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2003.

- Корчак Елена Анатольевна. “Бед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как угроза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российской Арктики.” *Арктика и Север*, № 40 (2020).
- Заславская Т. И. “Трансформация соци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уда идет Россия?.. Социа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Москва: Аспект Пресс, 1996.
- Заславская Т. И. “Стратификац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перемены: монитори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 1 (1996).
- Климанов В. В.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осква: Эдиториал УРСС, 2000.
- Подшивалов Н. С., Сивоброва И. А. “Социальная поляризация и дифференциация доходов населения по оси «Север-Центр».” *Арктика и Север*, № 55 (2024).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Росстат, 2019.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Росстат, 2020.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Росстат, 2021.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Росстат, 2022.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Росстат, 2023.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 Росстат, 2024.
-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 Росстат, 2024.
- Рязанцев И. П., Халиков М. С.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оциология: Региональный аспект*. Москва: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2005.
- Тихонова Н. Е.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и: теории и реальность*. Москва: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2014.
- 국가통계연구원. “국민 삶의 질 지표 소개.” <https://www.index.go.kr/unity/potal/>

intro/LifeIntro.do (검색일: 2025.05.05).

Kochhar Rakesh. “The American middle class is stable in size, but losing ground financially to upper-income families.”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18/09/06/the-american-middle-class-is-stable-in-size-but-losing-ground-financially-to-upper-income-families/> (검색일: 2025.05.03.).

Reeves Richard V., Guyot Katherine. “There are many definitions of “middle class”—here’s ours.”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re-are-many-definitions-of-middle-class-heres-ours/?utm\\_source=chatgpt.com](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re-are-many-definitions-of-middle-class-heres-ours/?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05.0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2.05.2014 N 296 (ред. от 05.03.2020). “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5 марта 2020 года),” <http://docs.cntd.ru/document/499093267> (검색일: 2020.05.2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5.03.2020 № 164. “Об Основ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003050019?index=1&rangeSize=1> (검색일: 2024.04.2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6.10.2020 № 645. “О Стратегии и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010260033> (검색일: 2024.04.26.).

Abstract

## Changes in Income and Social Stratification of Arctic Residen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ussian Arctic Policy in 2020

Wooik Choi

This study focused on the goal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Arctic residents” amo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ussian Federation’s Arctic Policy until 2035” established by the Russian government in 2020, and analyzed the change in “income” of Arctic residents,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indicators among them. The average income of Arctic residents in Russia increased in the first half of the 2020s compared to the second half of the 2010s. Since 2020, the average income of Arctic residents in Russia has not only exceeded the national average, but also increased by a greater margin, and the regional income ranking has also risen.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end of total income ratio by income quintile, it was found that among Arctic residents in Russia, only the upper class increased their income in the 2020s, while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saw a relative decrease in income. In particular, income was concentrated in high-income professional groups mainly engaged in mining.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in many regions is much higher than the Russian average, indicating that serious social stratification is occurring.